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02호 현대불교
2008년 10월 22일(음력 9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일체 만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일본일초도 쉬지 않고 서로 공생 공용을 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천차만별로 개개인이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오늘의 이 자리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간이라 하면 '우리가 자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내 마음과 몸을 다 스리면서 모든 일을 꾸려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입산을 했던 입산을 안 했던 이 공부하는 데는 조금도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온 고장을 모르기 때문에 갈 고장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라하. 영원한 근본, 자기 뿌리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렇게 해도 '뿌리가 뭐 팔라빠져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과감히 놓고 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7, 8년이 돼도 놓고 가지 못합니다. 이걸 무슨 까닭일까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행을 하면서 그 행하는 자체가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다면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항상 방황하고 관음을 좇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고 꼬달리고 가니 어떻게 걸림 없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를 발견했다면 상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상대를 발견했다면 세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부터 벌어진 일들인데도 나로부터 찾지 않고, 나로부터 생각해서 다스릴 줄 모르고, 나한테 다투는 용도대로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해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할 줄 모르고 이런다면 일일이 다투는 것을 똑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느니라." 하신 뜻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수 해를 두고 수십 년을 두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 뜻을 모르다면 항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그 굴레에서,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웃을 바퀴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 대로 웃을 입고 나오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생활 속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나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 외로이 살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말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항상 말을 걸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다." 하면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눈을 푹그렇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수 해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대로 알아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주인을 따라서 너 나 가 돌이 아니게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친척이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다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해해서 갖다가 버린 그 자리에 항상 고양이가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습니다. 자기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옹 야옹" 하고 고양이 우는 소리밖에 듣지 못하셨습니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웃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산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옛날 얘기라고만 하겠습니까? 그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을 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의 의식이 남아 있는데다가 고양이의 모습을, 옷을 입고 나온다가 개 모습을 하고 나온다가 돼지 모습, 소 모습, 토끼 모습, 곤충의 모습, 저 나무의 모습 등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겠습니까? 상대방들은 모두 웃입은 대로 대접을 해 줄 겁니다. 독사 소굴에 들어가서 독사가 되었다면 독사의 대접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로 여러분이 지금 사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이 아니게 중용을 할 수 있으며, 중용을 하는 데도 걸림 없이, 어떠한 거를 본다 듣는다 해도 구김살이 없이 자유스럽게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무명을 벗은 고로 어떠한 곤충에 이르러까지라도 보고 들으면 무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자동

다. 그래서 북두칠성도, 어떠한 별성도 이 우주 천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스럽게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칠석날 촛불을 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썩어 낫는데 그 썩은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칠석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뿌리와 자기 썩은 때려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물을 축축히 주면서 "마음을 밝혀서 네 뿌리를 보아야 된다. 네 뿌리가 일체 살림을 하고 가

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도님들이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물을 축축하게 해 놓으면 스님네들은 씨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썩어 되고 할 때에,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천도 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죠. 또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자기 씨에서 썩어 낫다는 것을 그 조상의 영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네들의 소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은연중에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알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애급니다.

그냥 절에 와서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피우고 물이나 떠 놓고 꽃공양이나 하고 "난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질 걸 알고, 자기로 인해 공용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바로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생명 없는 것이 없으므로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해서 돌아가게 했고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 그 나름대로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들끼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출한 거는 뭐냐?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정신계의,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해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나 천체물리학자가 자기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걸림 없이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일체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가깝고 멀고 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 이론 등 지금의 지식이나 의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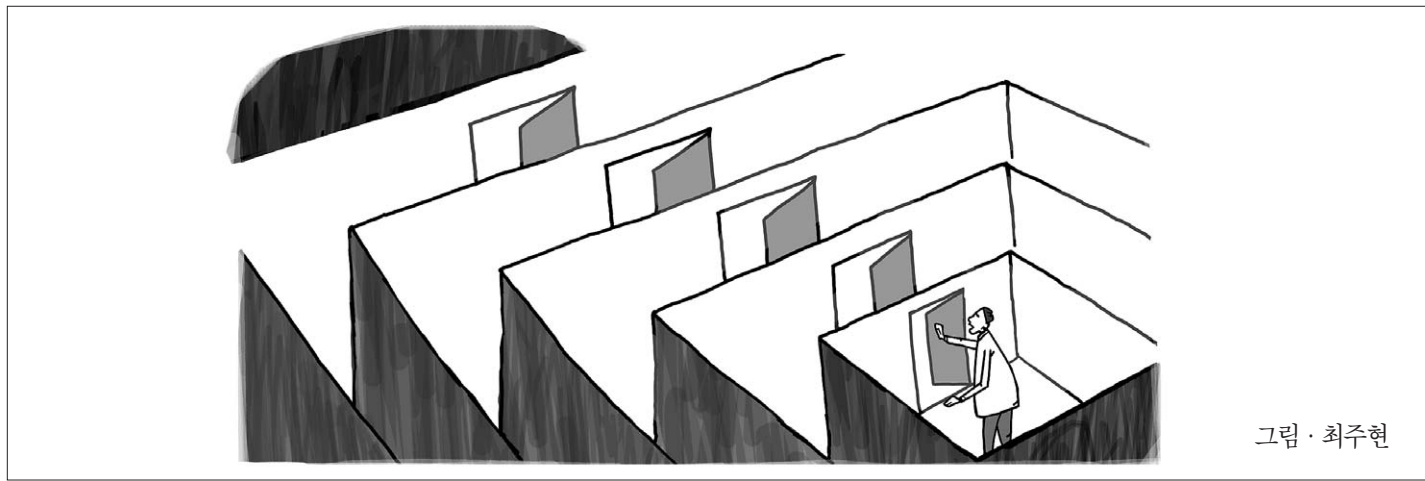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어느 탐정이 그래도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 요량을 알았는지 그 고양이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보고 거기를 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체가 나오고, 그래서 그 재산이 고양이 앞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있었습니까? 자기 주인이 죽었던 자리에 가서 그대로 몸을 벗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웃을 입을 수도 있고, 개의 웃을 입을 수도 있고, 돼지의 웃을 입을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칠석(七夕)'입니다. 칠석날! 일체 만물만생이 돌이 아니 고로 종합적으로 여래라고 하는 거와 같이, 칠석이라는 이름은 종합된 이름입니다. 칠석! 그러면 또 칠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개인들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때려야 될 수 없듯이, 성 자체가 때려야 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칠성은 개개인의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성을 종합해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

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백종(百種)은 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백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백종입니다. 씨가 아직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상 여러 신도님들은 부모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낫으면 그 자기의 씨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 그 씨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썩으면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 중에 헤매는 조상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

진흥원필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